



이사장 신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歲月은 流水와 같다’는 말처럼 식상한 말도 없지만 또한 이 말처럼 모든 이의 공감을 사는 말도 드물 것입니다.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2009년을 맞이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 또 한 번 이 말이 진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사장으로서 지내 온 지난 1년 동안 많은 부담감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기록보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애쓰고 있는 후배님들의 협회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2009년은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큰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은 한국 속기 창안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그에 맞춰 협회 홈페이지도 한층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중국 베이징에서 인터스테노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속기인들의 모임인 인터스테노가 아시아권에서 개최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간 참가하지 못했던 국제속기경기대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선발전을 치르고 참가단원들의 일정을 계획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인에게 우리나라 속기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10년 경인년(庚寅年) 한 해도 협회와 함께해 주십시오. 건강한 욕심이 넘쳐 나는 대한속기협회, 다가오는 변화와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와 같이 전진하는 대한속기협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간에 더욱 가까워지는 2010년을 기대해 봅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웃음으로, 『속기계』에서는 마음을 담은 글로,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로 만납시다. 자주 만나 소통하다 보면 더욱 창의롭고 역동적인 협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협회의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시대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로서 기록보국이라는 사명과 역할을 자각하고 앞으로 달려 나간다면 우리의 그러한 꿈은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희망이 되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처음의 마음처럼 올 한 해도 설렘과 용기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 나는 2010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이경식

이사회 소식

▷ 제210차 이사회는 2009년 2월 12일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제42회 정기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부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 보고를 받고 ▲ 부의안건 가항 기 선임된 신입 임원들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신입 임원 인사와 함께 집행부를 소개하였습니다. ▲ 나항 기타 안건으로 200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인터스테노 총회에서의 속기경기대회, 주제발표 등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속기 100주년 기념을 위한 사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회 기부금 모금, 2009년 5~6월 세미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제211차 이사회는 2009년 5월 15일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 부의안건 가항 2009 속기학술세미나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이사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 후 2009년 7월 15일~16일, 전남 담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사업부에 위임하였습니다(추후 국회 사정으로 장소 및 일정 변경). ▲ 나항 2009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 관련 건을 상정하여 국제부장으로부터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 관련 인터스테노와 연락 상황을 보고받고,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부터 17회 속기경기대회 겸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선수 선발을 위한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경기대회 참가 인원은 5~7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타 안건으로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선발 최종결선 후 대회 준비 훈련에 대한 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금을 위한 협회의 공문 작성 등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제212차 이사회는 2010년 1월 15일 개최되어 ▲ 총무부, 국제부, 자격심사위, 사업부, 홍보부로부터 2009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 부의안건 1항 제43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1월 29일(금) 오후 5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항 2009년도 결산서에 관하여 총무이사로부터 보고받고, 안기철 감사로부터 협회의 재정 현황이 타당하게 작성되었으나 일부 세입 항목 관련 용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3항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각 부 사업계획 보고 후 속기정보화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4항 기타 안건으로 속기협회에서 민간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10년 1년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준비작업 후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 결과 보고

- ▶ 제17회 속기학술세미나가 덕산 스파캐슬(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에서 8월 28일~2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2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09년 인터스테노 총회(2009년 8월 15일~21일)에 본 협회에서는 이경식 이사장, 권영찬 이사, 이혜정·김은경·이화경·박진우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45호 속기계(2009년도판) 발송과 소식지 제18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17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2009년 5월 22일(금) 개최하였는데, 다른 해와는 달리 2009년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최종선발전을 겸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경기 규칙에 따라 1분에 180자부터 320자까지 8분간 낭독 후 수정시간 없이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총 30명이 참여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7명을 선발(김나영·김현진·조미래·유운정·이은영·장현아·최기예)하였고, 부상으로는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경비 일체가 지원되었습니다. 시상식은 2010년 1월에 열린 제43회 정기총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회원 동정

승진 축하합니다!

이순영(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 → 서기관(2009. 6. 1)
고경효(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 → 서기관(2009. 6. 1)
간찬기(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주사 → 속기사무관(2009. 6. 1)
박병윤(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주사 → 속기사무관(2009. 2. 28)
김지숙·최혜련·박소연·이수경·윤미영·한연미(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주사보 → 속기주사(2009. 9. 1)
제신지·권초롱·최혜연·이정윤(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서기 → 속기주사보(2009. 9. 1)
기자영·최성향·김나영(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서기보 → 속기서기(2009. 2. 13)
이은영(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서기보 → 속기서기(2009. 4. 1)
권오정·신동선(국회사무처) / 의정기록과 속기서기보 → 속기서기(2009. 7. 1)

복직 환영합니다!

최혜연(국회사무처) / 2009. 8. 21

휴직 다시 만나요!

김정아(국회사무처) / 2008. 8. 4 최정민(국회사무처) / 2009. 11. 5
손선락(국회사무처) / 2009. 3. 16

입사 환영합니다!

이성만·김나미·김밀알(국회사무처) / 2009. 9. 1

결혼 행복하세요!

이현정(국회사무처) / 2009. 5. 17 · 최성향(국회사무처) / 2009. 5. 23
이윤정(국회사무처) / 2009. 5. 30 · 조윤희(국회사무처) / 2009. 8. 29

파견복귀 수고하셨습니다!

김란희(국회사무처) / 국립국어원 →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2009. 2. 18)

파견 수고하세요!

조영기(국회사무처) / 국립국어원(2009. 2. 19~2010. 2. 18)
유희연(국회사무처) / 국내주간대학원 석사과정(2008. 2. 19~2010. 2. 18)
조미경(국회사무처) / 영국 요크대학 대학원과정(2008. 9. 3~2010. 9. 2)
황은화(국회사무처) / 중국 인민대학 대학원 파견(2008. 2. 1~2010. 7. 31)

퇴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윤(국회사무처) / 2009. 2. 28

새내기들에게 묻다!

10문 10답

1. 태어난 곳은?
2.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3.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모습은?
(별명을 공개해 주세요!)
4.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나요?
5.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6.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무엇을?
7. 국회 생활의 에피소드!
8. 당신에게…… 동기란?
(오글오글 동기 자랑 시간)
9. 선배님들께 한마디!
10. 앞으로의 다짐·감오!



「국회 하늘정원에서」

● 이성만(1983. 2.)

1. 역곡.
2. 성실.
3. 흑인.
4. 컴퓨터 게임 & 간단한 제품 혼자 고치기.
5. 군대에서 밤에 몰래 인터넷하다가.
6. 지금쯤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았을까요.
7. 회의가 있는 날 정장 재킷을 안 입고 와서 컷으로 받아서 회의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8. 아무에게나 하지 못할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좋은 남자 있으면 빨리 소개해 주고 싶은 멋진 친구들이예요.
9.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 한번 사 주세요~
10. 항상 나태해지지 않고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 김필알(1984. 4.)

1. 전라남도 광주.
2. 포커페이스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
3. 평상시에는 유쾌하고 발랄! 가끔씩 덜렁대기도 해요.
별명은 이름 때문에 밀가루, 쌀알, 미달이 ^^;;
4. 웹서핑, 가끔 친구들과 스케이팅 타러 가는 것.
5. 안정적인면서도 너무 흔하지 않은 직업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이색직업이란 코너를 우연히 보고.
6. 패션잡지 에디터와 항공사 직원.
7. 정신없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정부 측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셨는데 너무 헛갈려서 처음 본 사람처럼 다시 명함을 받으러 갔다는..^^;
8. 안식처(아직 낯설고 조심스러운 이곳에서 편하게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평생 불 친구들^^)
9. 서툰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눈에 안 차 시더라도 예쁘게 봐 주시고 잘 알려 주세요^^
10. 곧 방이 바뀔 텐데 어딜 가든, 어떤 사람들과 지내든 그 방에 꼭 필요하고 잘 융합되는 물과 같은 사람,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원고에 한치의 실수도 없는 훌륭한 속기사가 되고 싶어요! ^^



● 김나미(1983. 10.)

1. 전라북도 김제.
2. 긍정.
3. 저도 궁금해요.^^;;
별명은 메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닮았다고)
4. 초간단 음식 만들기! (자취로 인해^^;;)
5.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하게 됐어요.
6.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일 것 같아요.
7. 복잡한 국회 구조 때문에 사무실 못 찾고 빙빙 돌며 헤맸던 일이 생각나네요.
8. 마음 터놓고 공감할 수 있는 동지들 ^^
9.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 주세요^^
10. 열심히 배우고 익혀 발전하는 속기사가 될게요.



공 지 사 항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 연 락 처 : 총무부 02)788-3085 백순정(총무부장)
02)788-2373 김희준(재정부장)

▲ 회비납부 : 301-0010-2714-91 농협중앙회 국회지점 김희준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회원부 02)788-3086 고영린(회원부장)
홍보부 02)788-3084 박정현(홍보부장)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관심도 가져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www.steno.or.kr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46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박정현(☎ 02-788-3084)에게 연락 주세요.



【 제17회 속기학술세미나 】